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소비 구조의 특징과 과제
- 연령별 소비 부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목 차

- 소비 구조의 특징과 과제
 - 연령별 소비 부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Executive Summary	i
1. 소비 부진의 장기화	1
2. 가구주 연령별 소득과 소비지출 특징	3
3. 시사점	9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동북아연구실 : 박 용 정 연 구 원 (2072-6204, yongjung@hri.co.kr)

Executive Summary

□ 소비 구조의 특징과 과제

- 연령별 소비 부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 소비 부진의 장기화

실질소비지출은 '14년 4분기 이후 9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으며 '16년 4분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5.1%(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더욱이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07~'11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은 각각 3.4%, 2.2%를 기록하였고, '12~'16년에는 동 3.0%, 2.1%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비중이 높은 중장년층의 평균소비성향의 하락과 더불어 가구주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민간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가구주 연령별 소득과 소비지출 특징

① 가구주 연령별 실질소득 변화

40~50대 가구주 가계의 실질소득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대 이하, 40대, 60대 이상 가구주 가계는 증가율 추세가 하락하고 있다. '16년 40대와 50대 가구주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각각 4.7백만 원, 4.5백만 원으로 '07년 대비 각각 약 0.7백만 원, 0.5백만 원 증가하였다. 반면, 20대 이하 가구주 가계는 '07년 대비 '16년 약 0.4백만 원 하락하며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실질소득이 하락하였다. 한편, 30대와 60대 이상 가구주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16년 각각 4.2백만 원, 2.2백만 원 수준이었다.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07~'11년 대비 '12~'16년 약 -0.4%p 하락 한 가운데 20대 이하(-2.1%p), 40대(-0.8%p), 60대 이상(-1.1%p) 가구주 가계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30대와 50대 가구주 가계는 실질소득 증가율이 동기간 각각 약 1.0%p, 약 1.2%p 상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신규취업자 수의 감소세 뿐 아니라 실질근로소득 증가율 수준도 둔화되면서 가구의 소득개선이 미흡한 현실이다. 전체 가구의 실질근로소득 전년대비 증가율은 '12년 4.3% 수준에서 '16년 -0.6%까지 하락하였고, 신규취업자 수도 '14년 약 53.3만 명을 고점으로 '16년 약 29.9만 명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실질근로소득의 '07~'11년 대비 '12~'16년 연평균 증가율은 20대 이하 가구주 가계의 하락 폭이 -5.8%p로 가장 컸으며 60대 이상 -4.1%p, 40대 -0.7%p, 30대 1.3%p, 50대 1.6%p 증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가구주 연령별 실질소비지출 변화

가구주 연령별 실질소비지출은 40~50대 가구주 가계가 가장 많은 지출 수준을 보였다. 40대와 50대 가구주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비지출은 각각 '07년 약 2.7백만

원, 약 2.3백만 원에서 '16년 약 2.9백만 원, 약 2.5백만 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에 반해 30대와 60대 가구주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비지출은 동기간 소폭 하락하였고, 20대 이하는 '07년 1.7백만 원에서 '16년 1.5백만 원으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연령별 가구주의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50대('07~'11년 대비 '12~'16년 0.2%p 상승)를 제외한 전 연령대 가계에서 하락세이다. 특히 20대 이하 가구주 가계의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의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07~'11년 0.2%에서 '12~'16년 -4.4%로 약 -4.6%p 감소하였다. 30대, 40대, 60대 이상 가구주 가계 역시 동기간 -1.2%p, -0.7%p, -0.5%p 하락세를 시현하였다.

③ 품목별 소비지출 변화

'16년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주거비 관련 지출 비중은 '07년에 비해 상승하였다. 주거·수도광열의 소비지출 비중은 '07년 10.4%에서 '16년 11.8%로 약 1.4%p 오르면서 가장 큰 폭의 비중 변화를 보였다. 특히 보건 항목의 경우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07년 6.5%에서 '16년 7.3%까지 상승하면서 주거비 다음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음식·숙박, 교통, 통신, 교육 등 선택적 항목의 소비 비중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교육비의 경우 학령인구의 감소로 '07년 대비 '16년 -1.3%p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은 30대, 50대 가구주 가계의 경우 선택적 소비의 비중이 높았고 60대 이상 가구주 가계는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 소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16년 항목별 소비지출 비중은 20대 이하 가구주 가계는 주거·수도광열(18.9%), 30대와 50대는 음식·숙박(14.3%, 14.1%), 40대는 교육(17.1%), 60대 이상은 식료품·비주류음료(20.0%)의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욱이 '07~'11년 대비 '12~'16년 연평균 가계의 부채감소 지출(기타지출)과 이자비용 지출(비소비지출)의 비중이 소폭 상승하였다.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감소 지출과 이자비용의 비중은 '07~'11년 대비 '12~'16년 각각 약 5.5%p, 약 0.1%p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동 항목의 40대 가구주 가계의 지출은 각각 '16년 월평균 약 143만원, 약 10만원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 시사점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의 소비여력 약화는 소비 부진의 장기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령별 및 소비 품목별 특성에 맞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의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이 가구의 소득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를 통해 민간소비 회복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구주 연령에 따른 맞춤 전략을 통해 가계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정책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 경제가 고령화로 인한 보건 관련 수요의 증대 및 사회적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가구의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통해 경제 전반의 하방 압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1. 소비 부진의 장기화

○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소비지출도 악화 추세

-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민간소비 증가율

- '17년 1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율을 기록하며, 동 2.9% 증가율을 기록한 경제성장률을 0.9%p 하회
- 특히, '07~'11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은 각각 3.4%, 2.2%를 기록하였고, '12~'16년에는 동 3.0%, 2.1% 수준을 보이면서 민간소비가 경제 성장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14년 이후 실질소득과 실질소비지출 수준도 지속적으로 악화

- '14년 1분기 실질소득과 실질소비지출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각각 2.2%, 1.9% 수준이었지만 '16년 4분기 -2.3%, -5.1%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실질소득은 '15년 3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실질소비지출은 '14년 4분기 이후 9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16년 4분기 실질소비 지출은 '09년 1분기 -7.3% 이후 가장 낮은 -5.1%를 기록

< 민간소비 및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ECOS 국민계정.
주 : 실질, 원계열, 분기 기준.

< 실질소득 및 실질소비지출 추이 >



자료 : 통계청 KOSIS 가계동향조사.
주 :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 최근에는 인구 비중이 높은 중장년층의 평균소비성향¹⁾ 하락과 더불어 가구주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민간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전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하락 추세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성향을 지닌 40대와 60대 이상 가구주 가계의 하락폭이 가장 큰 수준

· 전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07년 76.7%에서 '16년 71.7%로 약 4.9%p 하락

※ '07년 76.7%→'11년 77.1%→'16년 71.7%

· 과거 40대 및 60대 가구주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07년 대비 '16년 각각 약 -4.7%p, 약 -10.7%p 감소

· 최근 20대 이하의 소비성향은 '16년 77.1%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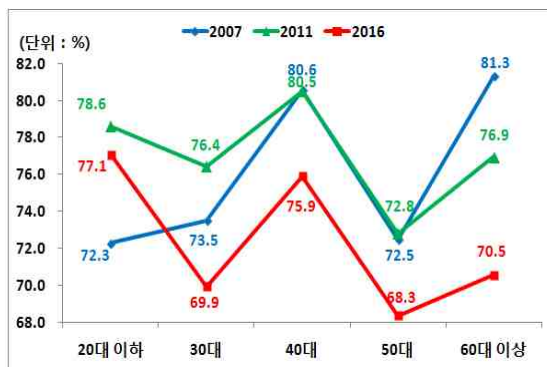
- 한편, '13년 이후 40대 가구주의 비중은 60대 이상 가구주의 비중을 하회하며 가구주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

· 40대 가구주의 비중은 '12년까지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13년부터 60대 이상 가구주 비중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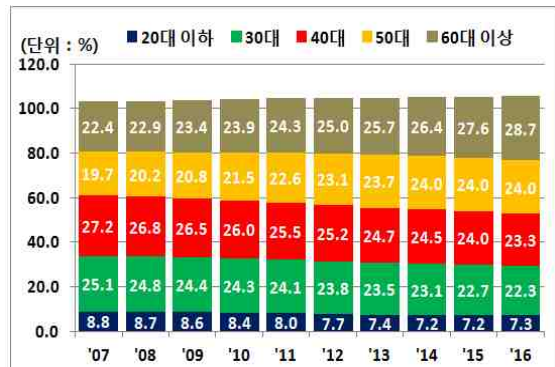
· 특히, 50~60대 가구주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 추세를 기록하며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 변화가 이뤄지고 있음

○ 이하 본고에서는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 및 소비지출 구조의 특징 분석을 통해 민간소비 부진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



< 가구주 연령별 인구비중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DIS 이용 자체 계산.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주 :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1)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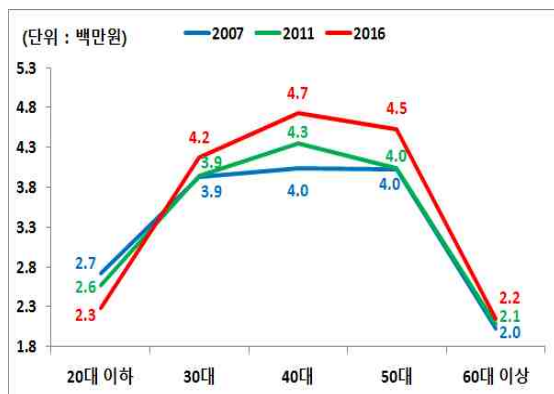
2. 가구주 연령별 소득과 소비지출 특징2)

① 가구주 연령별 실질소득 변화

○ 40~50대 가구주 가계의 실질소득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20대 이하, 40대, 60대 이상 가구주 가계는 증가율 추세가 하락

- 전 연령대 중 40~50대 가구주 가계의 실질소득은 가장 높은 수준임
 - '16년 40대와 50대 가구주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각각 4.7백만 원, 4.5백만 원 수준으로 '07년 대비 약 0.7백만 원, 약 0.5백만 원 증가
 - 반면, 20대 가구주 가계는 '07년 대비 '16년 약 0.4백만 원 하락하며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실질소득이 하락
- 실질소득 증가세가 낮아짐에 따라 실질소비지출 역시 함께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됨
 -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07~'11년 대비 '12~'16년 약 -0.4%p 하락한 가운데 20대 이하, 40대, 60대 가구주 가계도 증가율이 감소하는 모습
 - 특히,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과 실질소비지출 증가율 차이는 '07~'11년 약 0.2%p에서 '12~'16년 약 1.0%p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실질소득 감소(-0.4%p)에 비해 실질소비지출 감소(-1.2%p)가 큰 것이 원인으로 작용

< 연령별 실질소득 추이 >



< 연령별 실질소득과 실질소비지출 증가율 >

(단위 : %)

구분	'07~'11년		'12~'16년	
	실질 소비	실질 소득	실질 소비	실질 소득
전체	0.2	0.4	-1.0	0.0
20대 이하	0.2	-1.5	-4.4	-3.5
30대	0.7	0.0	-0.6	1.1
40대	1.3	1.8	0.6	1.0
50대	0.2	0.1	0.4	1.3
60대 이상	-0.9	0.7	-1.4	-0.4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DIS 이용 자체 계산.

주 :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DIS 이용 자체 계산.

주1)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2)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2) 실질소비지출, 실질소득, 실질근로소득 자료는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활용하여 실질화.

< 참고 1 > 실질근로소득과 신규취업자 수

○ 신규취업자 수의 감소세 뿐 아니라 실질근로소득 증가율 수준도 둔화되면서 가구의 소득개선이 미흡한 현실

- 전체 가구의 실질근로소득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며 신규취업자 수도 '13년 이후 하락세를 유지
 - '12년 전년대비 4.3% 수준이었던 실질근로소득 증가율은 '13년 0.8%, '16년 -0.6%까지 하락하면서 소득 개선세가 악화됨
 - 신규취업자 수도 '14년 약 53.3만 명을 고점으로 '16년 약 29.9만 명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 가구주 연령별 실질근로소득 증가율 수준도 과거에 비해 악화된 모습을 보임
 -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가구주 가계의 연평균 실질근로소득 증가율은 '12~'16년 각각 -7.0%, -1.4%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증가율로 전환
 - 특히, 40대 가구주 가계의 실질근로소득 증가율은 '07~'11년 2.9%로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12~'16년 2.2% 수준으로 약 -0.7%p 하락

< 신규취업자 수 및 실질근로소득 증가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KOSIS 및 가계동향조사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DIS 이용 자체 계산.
주 : 전년대비 증감.

< 연령별 실질근로소득 증가율 >

(단위 : %, %p)

구분	'07~'11	'12~'16	증감
전체	0.8	0.3	-0.6
20대 이하	-1.3	-7.0	-5.8
30대	0.1	1.4	1.3
40대	2.9	2.2	-0.7
50대	1.0	2.6	1.6
60대 이상	2.8	-1.4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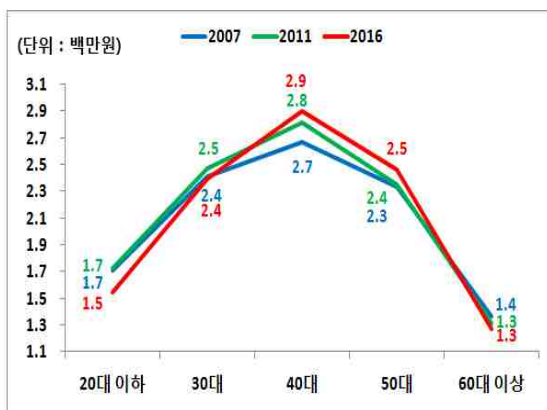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DIS 이용 자체 계산.
주1)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주2)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② 가구주 연령별 실질소비지출 변화

○ 40대 가구주 가계의 실질소비지출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증가율 추세가 하락하고 있음

- 연령별 실질소비지출은 40~50대 가구주 가계의 실질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역 U자형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 40대와 50대 가구주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비지출은 각각 '07년 약 2.7백만원, 약 2.3백만원에서 '16년 약 2.9백만원, 약 2.5백만원으로 소폭 상승
 - 30대와 60대 이상의 가구주 가계는 동기간 소폭 하락하였고, 특히 20대 가구주 가계의 실질소비지출 수준은 가장 크게 하락하는 모습
- 반면,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50대를 제외한 모든 가구주 연령대 가계에서 하락세
 - 전체 가구의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07~'11년 0.2%에서 '12~'16년 -1.0%로 약 1.2%p 하락
 - 20대 가구주 가계의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07~'11년 대비 '12~'16년 -4.6%p의 하락폭을 보이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50대 이상 가구주 가계는 동기간 약 0.2%p 상승

< 연령별 실질소비지출 추이 >



< 연령별 실질소비지출 증가율 >

(단위: %, %p)

구분	'07~'11년	'12~'16년	증감
전체	0.2	-1.0	-1.2
20대 이하	0.2	-4.4	-4.6
30대	0.7	-0.6	-1.2
40대	1.3	0.6	-0.7
50대	0.2	0.4	0.2
60대 이상	-0.9	-1.4	-0.5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DIS 이용 자체 계산.
주 :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DIS 이용 자체 계산.
주1)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주2)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③ 품목별 소비지출 변화

○ 최근 전체 가구의 의식주 관련 소비지출 비중은 다소 상승하고 있는 반면 선택적 소비지출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음

- 주거비 관련 지출은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식료품·비주류음료 등의 의식주 관련 소비 비중은 전반적으로 상승
 - 특히, 주거·수도광열의 소비지출 비중은 '07년 10.4% 수준에서 '16년 11.8% 까지 약 1.4%p 상승
 - 보건 항목은 고령화 현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07년 6.5%에서 '16년 7.3%까지 약 0.8%p 상승하면서 주거비 다음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임
-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은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 음식·숙박, 교통, 통신, 교육 등의 항목은 과거에 비해 소비 비중이 감소
 - 특히 교육비 관련 지출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07년 대비 '16년 약 -1.3%p로 가장 큰 감소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 전체 가구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 >

(단위 : %, %p)

구분	'07년	'11년	'16년	증감
식료품·비주류음료	13.8	14.3	13.9	0.1
주류·담배	1.5	1.2	1.4	-0.1
의류·신발	6.3	6.5	6.2	-0.1
주거·수도광열	10.4	11.0	11.8	1.4
가정용품·가사서비스	3.7	3.8	4.3	0.6
보건	6.5	6.8	7.3	0.8
교통	12.4	12.1	11.8	-0.6
통신	6.6	5.9	5.5	-1.1
오락·문화	5.3	5.4	6.0	0.7
교육	11.1	11.3	9.9	-1.3
음식·숙박	13.6	12.5	13.4	-0.2
기타 상품·서비스	8.8	9.2	8.6	-0.2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DIS 이용 자체 계산.

- 주1)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 주2) '07년 대비 '16년 비중 증감.

○ 가구주가 60대 이상 고령층 일수록 의식주 관련 필수 소비의 비중이 높은 반면 30, 50대는 선택적 소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20대 이하 가구주 가계는 주거비, 40대는 교육 관련 소비지출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
 - 20대 이하 가구주 가계는 주거·수도광열, 40대는 교육비 항목의 소비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각각 '16년 18.9%, 17.1% 수준으로 분석됨
 - 한편, 30대와 50대의 소비지출 상위 항목이 동일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음식·숙박, 교통 등 선택적 소비가 높은 비중을 나타냄
- 가구주가 60대 이상 고령층 가계의 경우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 소비와 건강과 관련된 보건 항목의 비중이 높음
 - 식료품·비주류음료 20.0%, 주거·수도광열 16.7%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
 - 타 연령대에서는 소비지출 상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건 항목은 11.8% 비중을 나타냄

<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상위 5대 품목 >

(단위 : %, %p)

순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품목	증감	품목	증감	품목	증감	품목	증감	품목	증감
1	주거 및 수도광열 (18.9)	2.9	음식·숙박 (14.3)	0.3	교육 (17.1)	-0.7	음식·숙박 (14.1)	-0.3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20.0)	-0.4
2	음식·숙박 (16.9)	1.7	교통 (13.5)	0.1	음식·숙박 (13.6)	-0.3	교통 (13.4)	-0.5	주거 및 수도광열 (16.7)	2.3
3	교통 (11.6)	-2.3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2.1)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2.3)	-0.3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3.0)	-0.7	보건 (11.8)	-0.5
4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9.5)	-0.2	주거 및 수도광열 (11.6)	1.2	교통 (11.0)	-0.6	주거 및 수도광열 (10.9)	1.3	음식·숙박 (11.0)	0.6
5	기타 상품 및 서비스 (8.4)	0.0	기타 상품 및 서비스 (9.5)	-0.6	주거 및 수도광열 (9.5)	0.4	기타 상품 및 서비스 (9.2)	0.2	교통 (9.5)	-0.3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DIS 이용 자체 계산.

주1) '16년 소비지출 비중 상위 5대 품목, ()는 비중.

2) 증감은 '07년 대비 '16년 비중 변화.

< 참고 2 > 부채관련 지출과 이자비용 지출

○ 40대 가구주 가계의 부채관련 지출 및 이자비용 부담이 타 가구주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큰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감소 관련 지출 비중은 '07~'11년 대비 '12~'16년 약 5.5%p 확대
 - 40대 가구주 가계의 부채감소 지출은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은 수준으로 '16년 전체 가구의 월평균 약 95만원을 상회하는 약 143만원으로 분석됨
 - 특히, 40대, 50대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감소 지출 비중은 '07~'11년 대비 '12~'16년 각각 약 7.3%p 6.1%p 확대되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임
- '12~'16년 연평균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중은 약 2.5%로 '07~'11년 대비 약 0.1%p 상승
 - 40대 가구주 가계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16년 약 10만원 수준으로 분석되며 '12~'16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중은 약 2.9%로 가장 높은 수준
 - 20대와 60대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중은 '07~'11년 대비 '12~'16년 각각 0.4%p, 0.3%p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임

< 가구주 연령별 부채감소 지출 및 이자비용 (2016년)³⁾ >

(단위 : 만원, %)

구분	부채감소 지출			이자비용		
	만원	'07~'11	'12~'16	만원	'07~'11	'12~'16
전체	95.4	28.2	33.7	6.6	2.4	2.5
20대 이하	46.2	29.5	31.0	3.6	1.3	1.7
30대	128.9	34.7	40.1	8.3	2.8	2.7
40대	143.0	31.3	38.6	9.7	2.7	2.9
50대	103.7	23.4	29.5	8.3	2.2	2.3
60대 이상	40.1	17.3	23.3	2.6	1.5	1.8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DIS 이용 자체 계산.

주1)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명목 기준.

2) '07~'11년, '12~'16년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해당 항목 연평균 비중.

3) '이자비용'은 비소비지출 항목으로써 주택대출이자와 주택 이외에 가계 운영을 위해 차입한 금전에 대한 지불이 아닌 기타이자로 구성.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은 기타지출의 성격으로 부동산 대출 상환, 기타 대출 및 전세금 반환으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

3. 시사점

-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의 소비여력 약화는 소비 부진의 장기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령별 소득, 소비의 변화와 소비 품목 특성에 맞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함
- 가구주 연령별 및 소비 항목의 특성에 따라 소비의 구조 변화가 상이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전체 가구의 실질근로소득 증가율 수준이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취업자 수도 크게 하락하고 있어 가계의 소득 개선이 미흡한 현실
 - 특히 최근에는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실질소비지출 증가율도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가구주 가계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
 - 특히, 20대 이하 가구주 가계는 주거비 부담, 30대는 주거비 및 부채관련 지출, 40대는 교육 및 부채감소 지출 비중의 확대가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반면, 50대의 경우 실질소득과 실질소비지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안정적 가구 계층으로 분석됨
- 고용과 소득개선을 통한 소비 확대 뿐 아니라 연령별 가계의 재무구조 개선, 가구주 고령화에 따른 보건지출 경감 노력, 소리심리 회복을 위한 불확실성 제거 등을 통해 구조적 소비 부진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국가의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이 가구의 소득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를 통해 민간소비 회복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의 총량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로소득이 지속 유지될 수 있는 소득 경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규제 합리화, 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경제생태계 조성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병행해야 할 것임

- 둘째, 가구주 연령에 따른 맞춤 전략을 통해 가계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정책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주거비 부담은 가계의 소비를 제약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주택관련 대출 추세의 면밀한 점검을 통해 가계부채의 축소 과정 및 안정적인 주택 가격 관리가 절실한 상황
 -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 축소, 서민정책금융 강화 등 중장년층의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셋째, 우리 경제가 고령화로 인한 보건 관련 수요의 증대 및 사회적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 정책 마련이 필요함
 -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의 보건 관련 지출의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 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
 - 앞으로 고령화, 보건 등 관련 복지수요 증대로 인한 사회적 지출 확대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회적 합의와 정책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넷째, 가구의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통해 경제 전반의 하방 압력을 완화시켜야 함
 - 고용과 소득개선을 통한 소비여력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한 사안이지만 유효수요를 확충하고 경기의 회복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가구의 소비심리를 개선시키는 방안도 필요
 - 특히 불확실성의 확대는 가구의 자산 가치 및 소득의 리스크를 확대시킴으로써 가구의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s) 성향을 높일 수 있어 민간 소비의 회복을 위해서는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박용정 연구원 (2072-6204, yongjung@hri.co.kr)
 이부형 이사대우 (2072-6306, Leebuh@hri.co.kr)